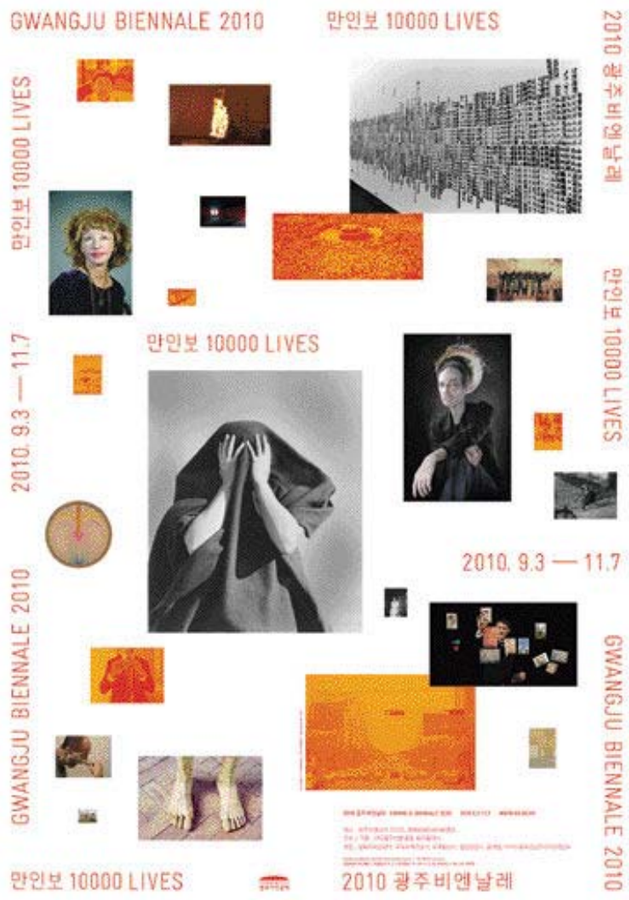

"포스터 속 마릴린 먼로를 찾아라"

광주비엔날레 대표작들 담겨 또다른 재미

개막 10여일을 앞둔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의 포스터를 보면 전시 주제와 대표 작품이 보인다.

광주비엔날레를 국내외에 홍보하게 될 이 포스터에는 마릴린 먼로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이 감춰져 있다.

또 베일에 가린 채 작품활동을 하다가 숨진 한 여성 작가의 침대 밑에서 발견한 '인형'을 포스터에 소개하는 등 이번 전시의 대표 작품들이 포스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0여 개의 이미지를 규칙없이 배열한 2종류의 포스터를 확정하고, 국내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포스터는 "인류가 만들어 낸 다양하고, 의미있는 이미지들을 보여주겠다"는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예술총감독의 기획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

'모던 바틀릿의 인형'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릴린 먼로의 삶과 죽음을 엿볼 수 있는 안드레 데디에네스의 사진 작품 '죽음을 보여주는 마릴린'이다.

19살이던 마릴린 먼로(1926~1962년)는 당시 유명 사진 작가였던 안드레 데디에네스와 5주간 미국 남서부를 여행하면서 수 많은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들은 전 세계 유명 잡지의 표지로 실리면서, 마릴린 먼로는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게 됐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속에는 1946년 머리와 상반신 위로 담요를 뒤집어쓰고 있는 마릴린 먼로 사진이 게재됐다. 담요와 손으로 얼굴을 가려, 전혀 마릴린 먼로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사진이다.

'미의 여신'이 '미'를 가리면서, 시각적인 세계에서 '여신'마저 사라져 버린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른 여섯의 나이로 사망한 그녀의 때이른 죽음으로 사진 곳곳에서 더욱 슬픔 묻어나는 작품이다.

또 다른 포스터를 장식하고 있는 '모던 바틀릿의 인형'도 놓칠 수 없는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다.

1993년 골동품 상인 매리온 해리스는 뉴욕 골동품 시장에서 기묘한 인형을 발견한다. 20㎝ 크기의 이 인형은 당시 세상을 떠난 모던 바틀릿의 방에서 찾아 낸 유산의 일부였다. 생전 사진 작가로 활동했던 모던 바틀릿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고, 그녀가 손으로 직접 만든 이 인형이 유일하게 그녀와 그녀의 작품 세계를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이다.

'무제'

'죽음을 보여주는 마릴린'

이 밖에 PKK(쿠르드 노동자 당)의 멤버로 활동하다 죽은 친구 일대기를 담은 영상작품인 히토 슈테예를의 '11월'도 포스터를 장식하고 있다. 9·11 테러 소식을 전한 각국의 2001년 9월12일자 신문을 모은 한스 페터 펠트만의 '9월12일자 신문'도 포스터의 한 쪽에 자리잡고 있다.

또 세계적인 사진작가 신디 셔먼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성적 폭력, 절망, 죽음 등의 분위기를 연출한 '무제'연작은 포스터 속에서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역·사의 향·기

국립광주박물관 새 문화재

'이응도(二鷹圖)' 목판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해 전주이씨 양도공파 종중으로부터 조선 태조의 형인 원계의 둘째 아들 이천우를 그린 '이천우 영정'과 태종이 아낀 매를 새긴 '이응도 목판' 등 8건 20점의 유물을 기증받았다.

매가 새겨진 '이응도 목판'은 태종이 1416년에 이천우에게 하사한 것으로 애초 태종은 이천우가 관직에서 물러날 때 밭과 노비를 내리려 했으나 이천우는 이를 극구 사양하고 태종의 깍지 위에서 놀던 두 종류의 매 노화송골과 백송골을 청해 그려 보낸 것이다.

태종이 매를 청한 이유를 묻자 이천우는 "사냥을 좋아한 임금이 매에 빠져 정사를 그르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번에 공개된 '이응도'는 당시의 것이 손상되어 숙종 때 다시 그린 것이긴 하나, 조선시대 초기 매 그림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목판에는 유최기가 1747년에 쓴 찬문이 새겨져 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매는 받침대 위에 한 발만 딛고 서 있고 발에는 주인을 표시하는 시치미도 보이며 시치미의 줄이 받침대에 묶여져 있다. '시치미를 떼다'라는 말의 유래가 된 그 시치미다.

매의 종류는 백송골이다. 깃털은 탄력이 적고 뻣뻣하나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돼 있다.

또한 참매에 비해 날개의 폭이 좁고 긴 백송골의 생태적 특성도 잘 표현했다.

〈윤종균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응도 목판 (二鷹圖 木版) 가로 46cm, 세로 86cm, 두께 3cm

이응도 탁본

'1Q84' 원래 제목은 '1985'

하루키 집필 과정 뒷얘기 공개

일본의 인기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베스트셀러 '1Q84'의 집필 과정과 뒷얘기를 공개했다.

계간 '문학동네' 가을호에 따르면 하루키는 일본 신초사(新潮社)의 계간지 '생각하는 사람' 여름호와 한 인터뷰에서 원래는 '1Q84'가 아니라 '1985'라는 제목의 소설을 쓸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영화 '1984'를 만든) 마이클 래드퍼드 감독이 일본에 왔을 때 '1985'라는 소설을 쓰려고 생각한다 했더니 그가 대답하더군요, '하루키, 그건 좀 별로네. 앤서니 버지스가 이미 썼어' (중략) 안 되겠다 싶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1Q84'라는 제목을 생각해냈죠."

또 소설 구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Q84'라는 제목부터 지었다고 털어놓았다.

주인공 역시 일단 이름부터 정했다면서 "아오마메(여자주인공)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아, 이건 되겠구나 싶었다. 그다음에 덴고(남자주인공)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 소설은 분명히 재미있는 책이 되리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하루키는 또 '1Q84'에 등장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투영이라고 고백했다.

'1Q84'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비결로는 독자와의 신뢰관계를 꼽았다.

4권 출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나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그 전에도 이야기는 있었고 그 뒤에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김도연씨 국무총리상

제40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광주의 김도연씨가 작품 '자연그대로'(종이공예)가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광주지역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6명이 입선 이상의 수상성적을 거뒀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연그대로' 외에도 김광석씨의 '은함옻칠의 만남'(금속공예)도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고, 단체부문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김도연 작 '자연그대로'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상금 500만원 '김대중 자서전 독후감 대회'

'김대중 자서전'이 출간 15일 만에 4만질(8만권) 판매라는 기록을 세우며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자서전과 관련한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자서전을 펴낸 삼인출판사와 교보문고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을 읽자"라는 타이틀로 특별 이벤트 '김대중 자서전 독후감대회'를 마련했다. 이번 독후감대회는 1등 200만원(1명), 2등 100만원(1명) 등 총상금 500만원을 걸고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원고 30매 내외 분량의 독후감을 작성, 10월 20일까지 출판사 메일(saminbooks@naver.com)로 보내거나 출판사(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9-4 가나빌딩 4층)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322-1845.

지난 5월부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스님)는 '김대중 노무현 책읽고 밑줄긋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 희망자는 '운명이다' '김대중 자서전' 등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 관련 책을 읽고 밑줄과 감상을 기록해 책과 함께 기념사업회(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전일빌딩 5층)로 보내면 된다. 9월20일까지 마감분에 한해 심사를 통해 중고생 30만원, 대학생 이상은 50만원을 시상한다. 문의 062-232-0523.

한편, 지역 중소기업업체인 (주)무등(회장 김국웅)은 '김대중 자서전' 300여권을 단체로 구입해 사원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